

'97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종합순위 '1위'

'학생의 소질·적성 살리는 학생선발' 등 9개 분야 우수 성적, 7억 수혜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97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중 우리학교가 1위를 차지, 2년 연속 최우수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5.31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에 대한 선별적 행·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개혁을 정착시키고자 96년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 선정 사업을 통해 96년도에 총 1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는 우리학교는 올해 평가로 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액수는 당초 해당금액인 14억 원의 절반액으로 이는 교육부가 사업 계획 통보시 예고한 '기초 특수 목적 지원사업(공과대학중점지원사업, 대학원 중점지원사업, 국제전문 인력양성지원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서 96년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97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연속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반을 감액 지원한다'는 규칙에 따라 결정지어진 사항이다.

이번 평가는 1백 20개 대학을 대

상으로 4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차로 예비계획서 심사, 2차 본계획서 심사를 거쳐 3차 현지 실사 및 4차 최종심사를 통해 40개교를 선정했다.

심사방법은 평가위원들의 심사결과를 평균화하되, 평가위원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도모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우리학교는 평가분야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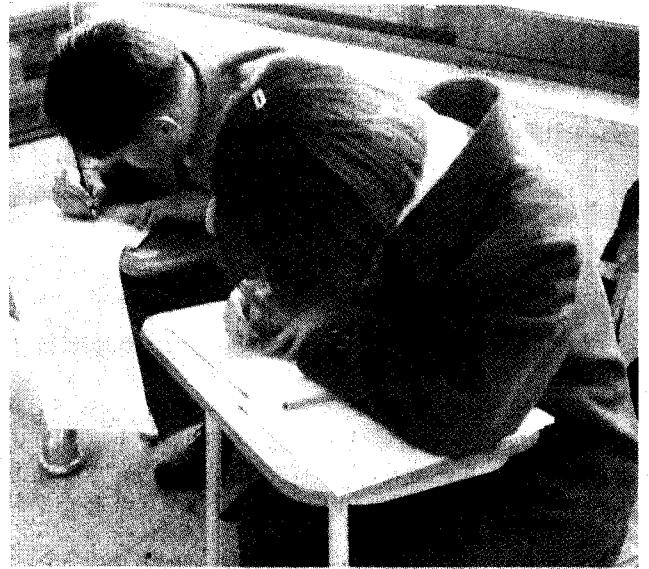
을 살리는 학생선발' 분야에 지정되었는데, 신입학제도, 편입학제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전형 방법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이 분야에서 우리학교는 '기술면접, 실기 고사, 인성검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에 의한 '선발' 및 '편입학 제도'의 활성화와 '시간제 학생등록제' 등으로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각 대학의 교육개혁추진체계 구축, 대학의 특성화, 열린 교육체제

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교육의 수월성 제고, 연구의 수월성 제고, 대학의 세계화, 대학의 정보화, 대학 행·재정의 합리성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전분야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와 함께 최상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남이 기자>

경희 space



대학순위 취업박람회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취업정보실,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주최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연과학대학 시청각실에서 '97 대학순위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42개업체에서 총 297명의 소요인력을 요청하여 오는 25일까지의 경기도내 7개대학을 순회, 개최할 예정으로 이미 우리학교를 포함 4개대학에서 치러진 바 있다.

지면안내

- 2 시사
- 3 대선에 가려진 국정감사
- 3 학술
- 3 시리즈-인문학의 위기 II
- 5 문학
- 5 등급의 전공관 설립논란과 전망
- 8 선거특집 I
- 8 후보자 정책토론회
- 9 선거특집 II
- 9 지상유세 및 집의응답
- 10 경희의 이름으로
- 10 출판평론가 강철주 동문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59. 11. 19 임강교실 준공
1969. 11. 21 경희교향곡 발표한 날
1984. 11. 19 수원캠퍼스 내에 우체국 개설, 이날 이후 학생들의 연애편지에 불이 붙었다는 전설이...
1991. 11. 15 각 대학원 정원증인 및 학과신설, 명칭변경
1994. 11. 21 서울캠퍼스 복지회관이 개관, 넓은 식당이 생겨 학생들은 마냥 기뻐한 날

교내단신

경희 스키 캠프 수원캠퍼스 경희 스키 연구회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의 '경희 스키 캠프'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체육교육관 411호 스키 연구회 동아리방과 외대 앞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료는 5천원이다.

참가비는 24만 5천원으로 교통비, 리프트, 기동품, 레크리에이션, 강습비, 보험료, 3일간의 식사를 포함하며 강사 1인당 능력별로 5~10명의 조를 편성하여 용평 리조트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캠퍼스 대학원 인터넷선거 실시 수원캠퍼스 대학원은 선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4일부터 21일 일반투표기간동안 인터넷선거를 실시한다.

기존의 일반 선거방식과 함께 실시되는 인터넷선거는 <http://gsa.kyunghee.ac.kr>로 접속, 참가신청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명부확인 등을 통해 패스아이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된 아이디로 후보선택사이트에서 후보선택을 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사 고

도개비 장터 이용안내

대학주보사에서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베품시장인 '도개비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다 배운 교재, 컴퓨터 등 사교있는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학내 곳곳에 마련된 도개비 장터에 대박에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대학주보 정보면에 그 내용을 실어 드립니다.

열린소리함 비치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주보사에선 학내 대학주보 가판대에 '열린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이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린소리함에 투고하십시오. 언제나 학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알 림

지난호 1면 수원캠퍼스 수질 기사에 언급된 검사 결과는 소독되기 전 지하수에 관한 검사 결과이며 현재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소독된 물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립니다.

수원 총학 선거 흥전일, 윤용관 당선

전체 투표율 70%, 투표자중 59.4% 지지언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총학생회장단선거에서 기호2번 흥전일(건축3), 부: 윤용관(화학3)군이 당선됐다.

기호2번후보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우세를 지킨 끝에 총투표자수 5천74명(총 투표자수: 7천2백45명, 투표율: 70.0%)에서 3천15표(득표율: 59.4%)를 얻어 기호1번 흥전: 김보성(토목 4), 부: 한원성(임학3)군(2천3표, 39.5%)을 1천12표차로 따돌렸다.

이번 투표는 지금까지의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미루어 보아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

으나 각 단대별로 평균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 이번 선거에 출된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기호 2번측은 선거에서 한총련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학문화, 학내행정, 학생생활' 등의 경희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총여, 총여비역 선거는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해설>

내년 총학생회장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탈퇴를 외친 기호2번 후보가 당선, 학생회 활동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중심적 위치를 담당하며 여러해동안 한총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운동과 학생회활동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총련을 정면에서 비판한 HIGH VISION의 흥전일(건축3), 부: 윤용관(화학3)군을 대표로 선택한 것은 한총련 탈퇴등 기존 학생회의 활동상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취재부>

황규영 양 상태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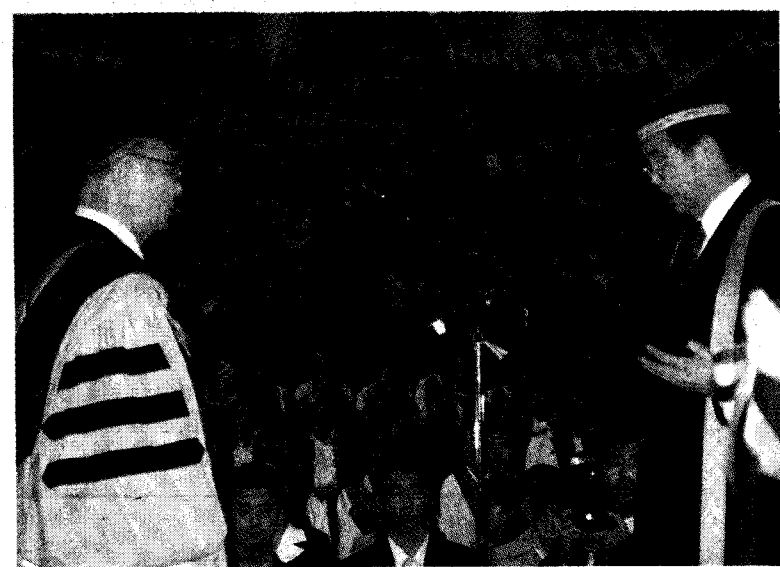
계속적 후원 필요

8월 3일 신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뺑소니 차에 치여 중대에 빠졌던 황규영양의 상태가 호전되어 자력 호흡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학과 학생회장 장준기군은 "신경은 살아있지만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은 인식하지만 누군지는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며 한달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요양하기를 권유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퇴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전체 구성원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약 8백만원 정도 모금액이 모인 상태지만 아직도 치료비에는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황규영학우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경학과 학생회실(201-2830)로 문의하면 된다.



조 학원장 '잠나랄바자즈상' 수상

조영식 학원장은 지난 15일 인도 봄베이 야시완트라오 샤반센터에서 '잠나랄 바자즈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했다.

간디의 사상을 고취하는데 일생을 바친 잠나랄 바자즈를 기념하고 그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잠나랄 바자즈 재단이 수여하는 이 상은 바자즈 탄생 1백주년인 지난 1988년부터 매년 간디의 사상을 고취하는데 공헌이 큰 외국인에게 상금, 중서, 트로피와 함께 수여된다.

한편 조 학원장은 지난 1일 일본의 장가대학을 방문, 이날 개막한 '제27회 창대제', 제 13회 백조제'에 참석하였다.

이날 장가대학은 조 학원장과 오정명 이사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와 단대최고영예상을 각각 수여했다. <사진>

이학부 첫 전공 결정

학부제 시행에 따른 이학부의 전공 선택 일정이 발표됐다.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현재 이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오

는 20일까지 희망 전공 상담교수에게 전공결정 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공결정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어떤 과목도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장학금 등의 혜택에도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는 희망전공과 수용능력의 차이 조절을 위한 재상담이 실시될 예정이며, 오는 29일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전공을 발표한다.

25일 사회봉사 기본교육

사회봉사 학점인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97학년도 2학기 '대학과 사회봉사' 기본 교육이 오는 25일 실시된다.

법과대학 203강의실에서 조만제 밝은사회봉사교수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뒤 일정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교육의 강의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다.

다시 돌아온 모교에서의 어우러짐

'97 경희인의 밤 성대히 치뤄져

지난 11일 오후 6시 새단장한 크라운관에서 개최된 '97 경희인의 밤'이 라운관에서 개최된 '97 경희인의 밤'이

밤이 1천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수원 국교원 'D.E.E.P.' 연수

겨울방학 중 애지원서 실시

수원캠퍼스 국제교육원은 영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깨뜨리고 생활화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자 미국문화와 간접체험 할 수 있는 테마프로그램, 'D.E.E.P.(Dormitory Environment English Program)'을 오는 겨울방학 중 실시한다.

98년 1월12일부터 2월21일까지 실시하는 이 교육은 주간계획에 따른 1일 4회의 정규수업(1회: 1시간 20분-30분)과 매일 1시간40분씩 실시하는 담임특별수업을 통한 간

접문화체험프로그램, 과제 및 영어일기작성시간을 통한 작문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1일 등록 마감 후 테스트나 인터뷰를 통해 각각 15명으로 구성된 3단계 13개반을 구성, 교육하는 이번 연수 기간중에는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과 성적표가 발부되며, 각 영역별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국교원에서 실시하는 1년 과정 토익 무료수강증을 수여한다.

함께 찾아야 할 길

교시탐

수원캠퍼스의 선거가 14일 총학생회의 선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간 선거운동에 있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이번 선거를 마감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우선 박수를 보낸다.

선거결과 2번 후보가 3천15표로 1번후보를 천여표이상의 큰 차이의 승리였다. 이번 선거에서 양 후보간의 공약중 첨예한 대립을 보인 부분은 '한총련탈퇴'였는데 비운동권인 기호 2번의 당선은 대부분 학생들의 한총련바라보기는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총학선거의 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총련 주류 세력의 메카인 전남대의 총학 결선결과 비주류를 자칭하는 청년공동체(사람사랑)가 기존 총학을 이끌던 자주적 학생회(자주대도)의 후보를 4백32표차로 따돌리고 총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조선대 역시 비주류권 후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당선된 흥전일, 윤용관후보는 오는 11월 말 학생총투표를 통하여 한총련의 탈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한총련의 탈퇴가 대체라고는 하지만 한총련의 탈퇴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총련 탈퇴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사람은 그 공약을 내세웠던 후보만이 아니다. 그들의 공약을 지지만, 그리고 비록 그들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운동의 변화를 공감하는 모든 유권자의 몫인 것이다. 새로 당선된 제30대 총학생회는 한총련탈퇴와 대안 마련에 학우들과 같이 하려하는 지금의 모습처럼 시종일관 어려운 고민들을 그들과 함께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류지은 기자>